# 서울주보

제2403호 2022년 7월 17일(다해)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 당 송** |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 창세 18,1-10ㄴ

**화 답 송** |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1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 콜로 1,24-28

**복음환호송** | 루카 8,15 참조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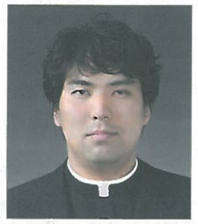
**복 음** | 루카 10,38-42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tv 307번 / U+tv 274번

# 같은 열정, 다른 모습



이승현 베드로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마르타는 정신없이 예수님의 일행을 챙기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바쁩니다. 우리는 이 두 명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자주 고민에 빠집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서로 다른 행동에는 동일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 일행의 휴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으로 보여도 마르타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정한 '농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1994년에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함께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996년부터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 주일은 농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의 식탁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이어지며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민해야 할 점은 우리의 식탁을 차릴 때 나오는 탄소가 기후 위기의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점입니다.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명 농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명 농업은 공동의 집인 지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 형제들을 위한 농사 방법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명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명 농업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도시와 농촌은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같은 열정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그 식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드러냈듯이, 농민과 도시민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열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농민 주일이 꿈꾸는 '생명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농민 주일이 꿈꾸는 '생명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주일마다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우리의 식탁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며, 생태적 회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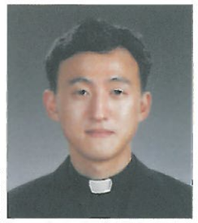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루카 10,42)

사진 설명

마르타는 예수님을 맞아들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머무르고 실천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관노비가 되어 제주도 유배길에 오른 '정난주 마리아', 추자도 물생이 끝 바위 위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2살 아들 황경한을 내려놓습니다. 추자도의 어민은 아기를 발견하고 맞아들여 잘 키웁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난주 마리아'의 믿음과 손님을 환대하는 추자도 어민의 마음을 봅니다.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 무한 리필의 충만함



정재우 세바스티아노 신부
명동밥집 봉사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요한 6,11)

명동밥집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왜 더 받느냐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밥을 더 원하시면 밥을, 국을 원하시면 국을, 김치를 원하시면 김치를 더 드립니다. 필요하신 만큼 드시고 가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병을 가져오시면 물도 채워 드립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이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충만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봉사자인 저도 충만하게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아 가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하시는 대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이 아닌, 그저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 한 끼를 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낯익은 분들이 많아졌고, 날이 갈수록 그분들도 저희의 인사에 답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가는 짧은 호의로도 마음은 충만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무엇을 더 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며, 머리로 알고 말로 하던 '환대'를 직접 몸으로 배웁니다.

충만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번호표 관리, 음식 조리, 배식, 홀 서빙, 리필, 퇴식구, 테이블 세척, 식판 운반, 설거지 등 각자 맡은 일을 행하는 봉사자분들과 함께 있어 마음은 또 충만해집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다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가득한 분부터 앳된 모습의 중학생까지, 일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부터 천주교를 잘 모르는 비신자까지,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봉사하러 오시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낍니다.

'환대', '이웃 사랑', '봉사'…. 이름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명동밥집의 일도, 매번 달라지는 메뉴와 날씨처럼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있고, 서로 주고받는 마음도 늘 새롭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제 자신이 더 충만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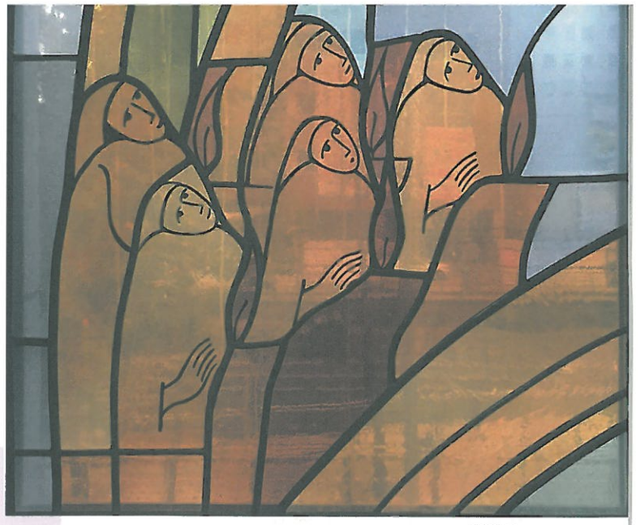
봉사자들은 만들어진 장에서 마음껏 놀고 충만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봉사하지 않는 날에도, 명동밥집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명동밥집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무한 리필의 장을 만들어주신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명동밥집 담당 신부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컷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미술칼럼

# 수도자의 깊은 영성이 담긴 교회 미술품



슬기로운 처녀(부분)
(김겸순 수녀, 1999년, 돈암동성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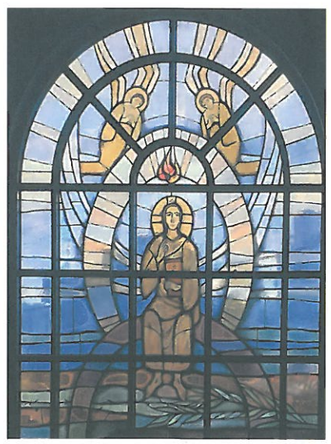
성스러운 집인 성당에는 아름다운 교회 미술품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미술품은 교우들을 신앙의 세계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비로운 유리화와 성화, 성물과 전례 용품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교회의 많은 작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직자나 수도자로 살면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던 신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도자이면서 화가로 활동 중인 김겸순(마리 데레시타, 노틀담 수녀회) 수녀도 오래전부터 교회 미술품을 만들어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자의 신분으로 독일 뮌헨 국립미술대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하였습니다. 작가에게 수도 생활과 예술 활동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랜 수도 생활에서 길어 올린 영성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수도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겸순 수녀의 유리화나 성화에서는 구상과 추상 표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절제된 색채, 단순한 형상, 빈 공간, 맑은 색감, 선적인 표현, 주제의 명확성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작가는 누구나 작품을 바라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속한 다양한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소외됨 없이 성미술에 다가갈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작가는 유리화와 성화뿐 아니라 제대와 독서대, 제단 의자, 성당 출입문 등 교회의 여러 전례 용품을 디자인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디자인이지만 상징을 표시하여 교회 용품이 특별한 성물임을 알려줍니다. 전례 용품은 소홀하기 쉽지만 김 수녀는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이며 하느님 백성의 집인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품은 그에 걸맞은 품격을 지녀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강복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김겸순 수녀, 2009년, 청량리성당)

김겸순 수녀가 제작한 성화와 전례 용품은 우리나라 여러 성당과 수도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에는 돈암동성당, 동작동성당, 목3동성당, 목5동성당, 반포성당, 세종로성당, 청량리성당에 유리화와 전례 용품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적 경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공동의 집 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생물자원을 우리 인간 사회가 다 써버린 날을 의미하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매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22년은 7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미래에 필요한 자원까지 앞당겨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게 공급되는 것처럼 여기며 상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상품 생산과 소비의 결과인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식의 생산과 소비, 오염물질 배출이 계속된다면 공동의 집 지구는 더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며, 지금도 고통받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며 돌보라고 맡기신 형제자매들과 미래 세대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우리 사회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윤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으로 인간 존엄성 보호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존중이 꼭 포함된 생태적 경제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인간 사회의 경제 활동이 공동의 집 지구를 파괴하고 있기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전환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려면 공동의 집 지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중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과 연결된 은행과 보험사 등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교황청에서는 이미 이러한 투자 철회를 실천하고 있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 등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항상 살펴 주십시오. 또, 경제 활동이 사람과 공동체를 제대로 돌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권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 활동은 기후 위기 극복에도 필수적입니다. 지역의 소매업자와 생산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된 우리 농산물 구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다양한 물건과 식품이 내게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재사용, 재활용 등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지를 살피며 구매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가 모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피조물들과 사람들을 돌보는 데 계속 관심을 두고 우리가 행동해 나간다면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은 꿈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생태적 경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걷는 우리 신앙인이 꼭 마음에 담아야 할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향으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앞장서 온 가톨릭 농민들에게 오늘 농민 주일을 맞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 참사회 심의를 거친, '2021년도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구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상 태 표①

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자 산 | | |
| Ⅰ. 유 동 자 산 | 85,170,209,261 | 62,273,870,294 |
| 현 금 과 예 금 | 66,406,250,974 | 61,810,277,604 |
| 유 가 증 권 | 7,536,620 | 7,536,620 |
| 단 기 대 여 금 | 0 | 30,000,000 |
| 미 수 금② | 356,740,088 | 0 |
| 미수금(교구납부금)③ | 18,337,754,989 | 0 |
| 가 지 급 금 | 0 | 348,698,800 |
| 선 급 법 인 세 | 61,926,590 | 77,357,270 |
| Ⅱ. 비 유 동 자 산 | 412,585,741,854 | 719,343,723,021 |
| 1) 투 자 자 산 | 12,912,805,200 | 5,618,830,060 |
| 장 기 대 여 금 | 3,623,000,000 | 3,713,000,000 |
| 보 증 금 | 1,133,391,000 | 1,760,747,600 |
| 전 신 전 화 가 입 권 | 14,378,000 | 138,066,460 |
| 기 타 자 산 | 3,108,800 | 0 |
| 퇴 직 전 환 금 | 5,465,400 | 7,016,000 |
| 출 자 금④ | 8,133,462,000 | 0 |
| 2) 유 형 자 산 | 399,672,936,654 | 713,724,892,961 |
| 토 지⑤ | 251,907,720,131 | 481,979,268,691 |
| 건 물⑤ | 143,915,376,575 | 225,611,841,243 |
| 차 량 운 반 구 | 272,912,060 | 331,983,330 |
| 비 품 | 1,461,935,788 | 1,363,851,597 |
| 성 물 | 435,433,000 | 435,433,000 |
| 건 설 중 인 자 산 | 1,679,559,100 | 4,002,515,100 |
| Ⅱ. 기타의 비 유 동 자 산 | 814,195,631,862 | 0 |
| 본 당 자 산 토 지⑥ | 448,085,700,670 | 0 |
| 본 당 자 산 건 물⑥ | 366,109,931,192 | 0 |
| 구 상 채 권 | 1,208,057,511 | 0 |
| 구상채권대손충당금 | -1,208,057,511 | 0 |
| 자 산 총 계 | 1,311,951,582,977 | 781,617,593,315 |
| 부 채 | | |
| Ⅰ. 유 동 부 채 | 14,882,489,240 | 17,090,330,499 |
| 단 기 차 입 금 | 14,000,000,000 | 15,000,000,000 |
| 예 수 금 | 688,462,180 | 1,036,154,272 |
| 예 수 보 증 금 | 2,570,000 | 606,000,000 |
| 가 수 금 | 191,457,060 | 448,176,227 |
| Ⅱ. 비 유 동 부 채 | 4,723,295,169 | 4,557,497,765 |
| 장 기 차 입 금 | 620,000,000 | 600,000,000 |
|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 4,103,295,169 | 3,957,497,765 |
| 부 채 총 계 | 19,605,784,409 | 21,647,828,264 |
| 순 자 산 | | |
| Ⅰ. 기 본 순 자 산 | 750,084,113,112 | 248,900,897,490 |
| Ⅱ. 적 립 금 | 40,602,990,148 | 40,602,990,148 |
| Ⅲ. 잉 여 금 | 501,658,695,308 | 470,465,877,413 |
| 순 자 산 총 계 | 1,292,345,798,568 | 759,969,765,051 |
| 부 채 와 순자산 총계 | 1,311,951,582,977 | 781,617,593,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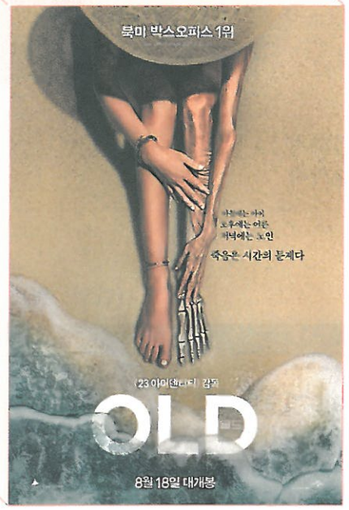
# 운 영 성 과 표

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 과 목 | 당 기 | | 전 기 | |
|---|---|---|---|---|
| Ⅰ. 일 반 수 입 | | 89,122,709,049 | | 95,654,909,217 |
| 봉 헌 금⑥ | 58,866,592,553 | | 38,759,076,918 | |
| 후 원 금 | 5,507,265,000 | | 5,369,600,000 | |
| 목 적 헌 금 | 9,224,787,857 | | 6,964,467,866 | |
| 기 부 금 | 8,890,949,037 | | 24,386,494,714 | |
| 부속 기관 수입 | 3,551,066,707 | | 15,171,106,143 | |
| 기 타 수 입 | 3,082,047,895 | | 5,004,163,576 | |
| Ⅱ. 특 별 수 입 | | 275,718,258 | | 663,683,311 |
| 보 조 금 수 입 | 275,718,258 | | 663,683,311 | |
| Ⅲ. 선교사업운영비 | | 38,795,638,365 | | 59,231,912,926 |
| 선 교 비 | 16,062,431,443 | | 28,344,233,481 | |
| 성 무 활 동 비 | 11,728,955,781 | | 11,870,646,895 | |
| 교 육 비 | 1,158,018,168 | | 1,228,758,690 | |
| 사 제 양 성 비 | 1,289,690,600 | | 1,197,602,000 | |
| 자 선 찬 조 비 | 8,355,565,298 | | 16,192,203,492 | |
| 행 사 비 | 200,977,075 | | 398,468,368 | |
| Ⅳ. 일 반 운 영 비 | | 19,479,589,274 | | 17,763,483,662 |
| 인 건 비 | 8,348,743,758 | | 8,665,874,503 | |
| 여 비 교 통 비 | 27,001,421 | | 31,805,376 | |
| 회 의 비 | 3,021,180 | | 6,386,210 | |
| 운 영 비 | 2,310,178,577 | | 2,580,735,020 | |
| 세 금 과 공 과 | 5,538,663,599 | | 3,747,915,307 | |
| 복 리 후 생 비 | 1,831,298,785 | | 1,731,380,605 | |
| 조경및기타시설비 | 439,566,588 | | 737,344,126 | |
| 기 타 | 981,115,366 | | 262,042,515 | |
| Ⅴ. 당기운영이익⑦ | 31,123,199,668 | | 19,323,195,940 | |

① **재 무 상 태 표** | 2021년 회계연도부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회계처리
② **미 수 금** | 교구에서 대납한 각 단체나 본당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③ **미수금(교구납부금)** | 본당에서 미납한 교구납부금
④ **출 자 금** | 수증받은 수익용 건물을 출자금으로 처리
⑤ **토지와 건물** | 2021년 1월 3일자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함.
교구와 본당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 토지총액 699,993,420,801원, 건물총액 510,025,307,767원
⑥ **봉 헌 금** |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본당에서 미납한 교구납부금 183억원을 수입으로 포함
⑦ **당기운영이익** | 수입으로 인식한 교구납부금 183억원을 제외하면 실이익은 127여억원임.




영화칼럼

영화 '올드'

# 하느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영화 〈올드〉에서처럼 1년이 30분과 같이 빠르게 흐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거나, 그곳에 머무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1시간이 7년처럼 느리게 가는 행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곳으로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가장 원초적 본능이며, 인간에게 늙음과 죽음보다 싫고 두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믿으면서도 '개똥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래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초현실적 상황을 섬뜩하게 그려온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올드〉에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시간의 빠르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도, 같은 시간에 인간을 빠르게 늙고 죽게 만드는 곳'이 있다.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자성을 가진 희귀한 광물질의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성장과 노화가 쏜살같이 진행되는 해변입니다.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 가족 여행을 온 카파(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분)와 프리스카(빅키 크리엡스 분) 부부, 열한 살과 여섯 살인 딸 매덕스와 아들 트렌트, 의사인 찰스(루퍼스 스웰 분)와 그의 아내와 노모와 강아지와 어린 딸, 남자 간호사와 여자 심리치료사가 그곳에 갑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의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시간만 너무나 빠른 곳에서 매덕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성숙한 처녀가 되고, 어린아이였던 찰스의 딸이 트렌트의 아이를 임신해서 30분도 안 돼 출산을 합니다. 프리스카의 종양은 갑자기 커지고, 방금 생긴 상처가 피가 나기도 전에 없어집니다. 어제 실종된 여자의 시신은 뼈만 남아있고, 해안에는 버려진 호텔 물건들과 여행용품들로 가득합니다. 바위와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충격파로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혼란과 충격, 절망과 공포 속에서 찰스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신 질환이 드러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여자 심리치료사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틀도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들,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단 하루 만에 모두 마주하고 행동으로 저지릅니다. 그러나 〈올드〉가 '그곳'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공포나 놀라움이 아닙니다. 바로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 서서야 아무리 남은 인생이 짧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음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지난 삶의 이기심과 두려움이 부질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생이란 시간이 단 이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한처음"(창세 1,1)으로 시작한 하느님의 시간은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시간을 빠르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저마다의 인간입니다. 세익스피어도 "시간은 사람에 따라 각각의 속도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 오늘(7월 17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갖게 살도록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농민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9년 7월 20일 최석우 안드레아 몬시뇰(87세)

###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농민을 위한 기도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교구청알림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7월18일(월) 10시30분, 광장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제10회 Now & Here 전: 1전시실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손글씨전: 2전시실
전시일정: 7월20일(수)~25일(월)

###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대상: 본당에서 "부득이하게 정규 예비 신자 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인, 본 교육은 서울대교구 본당에 한함, 본당신부님 승인 필수
강의: 6개월(온라인 교리) / 신청: 매월 1일 개강, 매달 20일 신청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
회비: 1만5천원 /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자세한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참조

### 사목국 직장사목팀

**1)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공직가족 피정대회**

대상: 전국 가톨릭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과 가족(퇴직자 포함) / 주요내용: 도보성지순례 및 영성특강, 문화공연 및 장엄미사(정순택 대주교 집전)
때: 9월24일(토) 10시~17시
곳: 효창운동장(도보 성지순례 포함)
문의(신청):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시교우협의회, 기관별 교우회 총무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 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연습 · 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모집과정: 온라인-2022년 영성심리 아카데미(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세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 2023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7월29일(금) 14시, 프란치스코 홀 / 02)774-1784
**7월~12월:** 2023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추첨은 한 커플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 | | |
|---|---|---|
| 대성당 | 금요일 | 13시 |
| | 토요일, 공휴일 | 12시 · 15시 |
| 파밀리아 채플 | 금요일 | 17시 |
| | 토요일, 주일, 공휴일 | 11시 · 14시 · 16시 |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박래호 요한사도'
때: 매달 셋째주(화) 7월19일 오전 10시(176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회비: 10만원
때: 8월10일~12월21일 매주(수) / 20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신청기한: 7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 직원모집

###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 모집(계약직)

대상: 신자로 성실하신 분 / 근무: 주25시간(시간조정 가능)
업무: 성당 청소 및 제반사항 / 문의: 02)568-3656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우편(우 06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0길 19(대치동)) 및 이메일(kc7hoon@naver.com) 접수

### 의정부교구 행신1동성당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가능)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가스안전 소지자 / 기타 자격증 우대) / 자세한 내용 교구 및 본당 홈페이지 참조
7월22일(금) 우체국 소인까지 우편(우 1049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2번길 68(행신동) 행신1동성당) 접수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도미니코 수도회 | 수시 |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
| 살레시오회 | 매월 네번째(토) 14시 | 수도원(대림동) |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 7월23일(토) 14시 |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 010-4241-1210 성소 담당 |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7월24일(일) 9시 | 서울 분원(장충동) | 010-8353-2323(osb3@hanmail.net) |
| 작은예수수녀회 | 수시 | 수녀원(군자동) | 010-8939-7970 |
|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 수시 | 신학원(한남동) | 010-2749-4596, 02)749-4596 |

## 입준단체 알림

###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평화의 모후 청년 쎌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순례**
때, 곳: 8월20일(토), 성거산·남방제(대전교구)
출발: 7시,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전접수 필수

**성모승천 전례피정(왜관 피정의 집)**
때: 8월13일(토) 16시30분~15일(월) 13시30분
곳: 왜관 피정의집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회비: 25만원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때, 곳: 7월29일(금)~8월1일(월)·8월12일(금)~15일(월)·8월26일(금)~29일(월)·9월23일(금)~26일(월), 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자연순례: 7월30일~8월2일(우도), 8월6일~9일(우도), 8월12일~15일(우도), 8월20일~22일, 8월26일~28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7월23일~25일·7월31일~8월2일·8월27일~29일, 여름특별일정 8월6일~9일·8월13일~16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 | |
|---|---|
| 1박2일 |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
| 2박3일 | 9월29일~10월1일, 광주교구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 | | |
|---|---|---|
| 효소 단식 | 8월4일(목)~7일(일) |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 성경 완독 | 8월12일(금)~20일(토) |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 | | |
|---|---|---|
| 제105차 | 8월12일(금)~20일(토) |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
| 제106차 | 9월9일(금)~17일(토) | |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 교육**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 | |
|---|---|
| 음악치유 피정반 | 8월22일~9월5일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 |
|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 8월11일~10월27일 매주(목) 13시30분~16시30분 |

**17지구(강서) 성령기도회** / 문의: 010-5513-9473
내용: 찬양, 묵주기도, 강의, 미사, 안수 / 강사: 양창우 신부
때, 곳: 7월26일(화) 13시~17시, 우장산성당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매월 넷째주(월) 7월25일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 교육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때: 9월26일(월) 10시·9월29일(목) 19시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 • 미사**
때: 7월26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하반기)**
문의(접수): 010-9620-4820 마리아학교(회관 311호)

| | |
|---|---|
| 대면반 | 8월30일~2023년 2월25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14만원(5명 함께)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
| 온라인반 | 8월31일~2023년 2월25일 매주(수) 낮반 14시~16시·밤반 20시~22시, Zoom |
| 젊은이 | 9월25일부터 매월 마지막주(일) 10시~16시 매월 1회(총 10회) / 중식 제공 |

**예수회센터 동영상 사전 녹화 강좌(9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 | | |
|---|---|---|
|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 매주(월) | 권오면 신부 |
| 신약성경과 영성생활-하느님 나라·죄와 구원 | 매주(월) | 임숙희박사 |
|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보기 12선 | 매주(화) | 예수회사제회 |
| 성경대학-요한복음1, 2, 3 | 매주(수) | 송봉모 신부 |
|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 매주(수) | 홍기령교수 |
| 가톨릭 사회교리 | 매주(목) | 전주희수사 |
|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 매주(금) | 이규성 신부 |
| 꿈을 통한 영적 치유 | 매주(금) | 홍기령교수 |

### 모집

**중앙보훈병원성당 연령회 회원 모집**
문의: 010-5224-8131 이 시몬 연령회장

**가톨릭 국악성가단 우리맥소리 단원 모집**
분야: 국악기(전공자)와 노래 / 문의: 010-4643-2306
대상: 성심으로 국악미사를 봉헌하실 수 있는 분 누구나

### 미사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홍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7월24일(8월 미사 없음)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 | | |
|---|---|---|
| 성체미사 | 매주(수) 19시30분 | 문의: 010-5818-8431 |
|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 넷째주(토) 10시 | |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7월25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7월18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2023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마당, 소형 기념미사 및 미니웨딩(10~20명 참석) / 문의: 02)833-9439
접수: 7월26일(화) 10시, 도림동성당 사무실 / 선착순

**원주교구 '옥수수잔치'에 초대합니다**
내용: 중식 제공(무료), 말씀 잔치 / 8월12일(금)까지 접수
때, 곳: 8월25일(목) 10시(미사), 배론성지(제천)
미사: 조규만 주교 주례 감사미사
문의: 033)742-9113 원주, 02)2269-2930 서울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9월6일~10월25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주최, 송파구 중대로20길 20-1)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전 • 진 • 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부부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직장 내 어려움·대인관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 | |
|---|---|
| 개인심리치료 |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
| 가족심리치료 |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7월26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 게재신청 - 문화행사

게재 된 신간 검색

신간

##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

이충렬 지음
김영사 | 544쪽 | 2만5천원
문의: 02)745-4823

탄생 200주년,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첫 정본 전기다. 1846년 25세의 나이로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기까지 삶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동안 불확실했던 마카오 신학교 생활과 어린 시절 등을 명확하게 규명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의 뿌리와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간

## 올라 빠드레

배혜은 지음
바오로딸 | 144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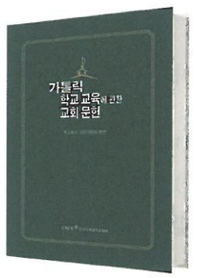
이 책은 북경에서 10여 년 유학 생활을 한 소피가 스페인 원로 선교사 하비에르 신부(도미니코 수도회)와 꾸렸던 스페인어 수업의 이야기를 38편의 에피소드 에세이로 담았다. 젊은이와 노인의 유대가 이뤄낸 따뜻한 소통과 꿈이 풍부한 선물을 건네준다.

신간

##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지음
주교회의 | 240쪽 | 6천원
문의: 02)460-7582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는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심화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천주교 신자와 갈라진 형제들 사이의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과 관련하여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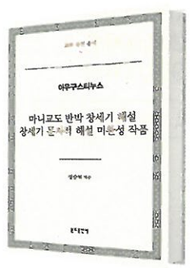



신간

##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지음
주교회의 | 720쪽 | 4만원
문의: 02)460-7582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관련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을 시작으로, 이후 발표된 교황님과 교황청 등 가톨릭 학교 교육 관련 각종 문헌들을 연대순으로 모아 편찬한 문헌집이다. 이 문헌집을 통하여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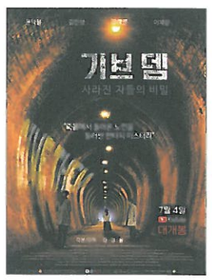



신간

## 마니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 창세기 문자적 해설 미완성 작품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분도출판사 | 416쪽 | 3만2천원
문의: 02)2266-3605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생을 관통하는 소망은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이 신학적 주제는 창조와도 관련이 깊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전 생애에 걸쳐 창세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석했는데, 그 가운데 두 권인 『마니교도 반박 창세기 해설』과 『창세기 문자적 해설 미완성 작품』을 한데 묶어 소개한다.




영화

## 기브 뎀: 사라진 자들의 비밀

영상보기: 유튜브 '기브 뎀'
문의: 02)401-2379 피엠픽쳐스

'죽었던 노인이 깨어났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노인이 매일 급격히 젊어진다.' 시간을 역행하는 판타지 미스터리 단편 <기브 뎀 : 사라진 자들의 비밀>이 유튜브에서 개봉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평협 등 생명운동단체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영화다.

제223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바오로) 010-5512-4450

| | | | |
|---|---|---|---|
| 주일 미사 |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br>•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br>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 유 아 세 례 |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평일 미사 |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 남성울뜨레야
일시 : 7월 17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 성소후원회 미사 : 7월 19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6월~7월).

| 성 명 | 세 례 명 | 구역/반 |
|---|---|---|
| 강민구 | 프란치스코 | 3-4 |
| 방만수 | 요셉 | 4-4 |
| 임재심 | 리디아 | 10-7 |

###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7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 여성울뜨레야
일시 : 7월 26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 병자영성체 : 7월 29일(금) 10시 미사 후

### ⊙ 7월 30일(토) 초등부주일학교 물놀이로 어린이미사는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 초등부주일학교 물놀이
일시 : 7월 30일(토) 오후 3시~5시, 성당마당
※ 오후 5시까지 성당마당 차량을 통제합니다.

### ⊙ 복사단 여름캠프
일시 : 8월 2일(화)~3일(수)
장소 : 캐러비언베이

###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5일(금)~7일(주일)
장소 : 가평힐링캠프
대상 : 중등부 1학년~3학년, 고등부 1학년~2학년
접수마감 : 7월 24일(주일)
지하 중고등부 교사실 및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문의 : 글라라 교감 (010-2517-3614)

###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대상 : 초등부(유치부 포함)
접수 : 7월 16일(토)~21일(주일)
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문의 : 안토니오 교감 (010-5377-8909)

* 주일학교 여름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 하절기 성당시설 이용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체회합 후에는 전등, 선풍기, 에어컨이 꺼졌는지 확인해주시고, 성당의 전기, 수도 등 모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주세요.
※ 냉방중인 곳과 잠금장치 설치된 곳에 문을 꼭 닫아주세요.

###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7. 10)

| 총세대 | 책정세대 (책정율) | 납부세대 (납부율) | 2021년 책정율 | 2021년 납부율 |
|---|---|---|---|---|
| 2,095 | 822 (39.2%) | 778 (37.1%) | 43.8% | 42.5% |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하영창 ·····일백만원 김진택 ·····일천만원
누 계 ·····51,078,600원

### ⊙ 감사헌금 (7월 4일~10일)
정수진 ·····칠만원 박정수 ·····이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김영종 ·····이십만원
이양범 ·····이십만원

###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15주일)
교무금·····10,652,000원
주일헌금····· 5,208,5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1,916,000원

| 입당 | 337 | 봉헌 | 217, 216 | 성체 | 182, 164 | 파견 | 31 |
|---|---|---|---|---|---|---|---|

주 님 당신의천막 에 누가 머 물리 이 까?